

原子力平和利用 UN會議

— 經緯와 그 展望 —

世界の南北諸國間에는 近年 여러가지의 政治的, 經濟的 問題 뿐만 아니라 科學技術, 工業技術에 대해서도 문제가 널리 認識되고 있다.

原子力の 平和利用에 대해서도 南側의 여러나라는 核燃料 등의 材料, 技術의 國際的 移轉에 대해서 北側의 여러나라에 의해서 작성된 政治的 障害가 적지않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非同盟 여러나라로 대표되는 南側의 여러나라는 開發途上國의 社會經濟開發을 위한 原子力平和利用에 관한 국제협력의 방향을 검토하는 UN會議의 개최를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1977년 UN총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原子力平和利用에 관한 UN會議」의 결의가 채택된 것을 계기로 구체화가 진행되어 1983년 8~9월에 주네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會議開催를 위해 열린 數次의 準備委員會에서 會議의 주요 테마인 原子力平和利用의 國際協力과 그 방법을 議論하는데 있어서 核非擴散을 어떻게 관련시키는가 등에 대해 南北諸國間에 意見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1983년 開催가 중지되었다. 1983年末의 第38회 UN總會에서 南側의 여러나라가 北側이 重視하는 1985년 9월의 核非擴散條約(NPT) 再檢討會議의 준비를 방해하지 않는 형태로 이 UN會議를 개최하는 것으로 양보했기 때문에 다시

1986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984년 6~7월에 비엔나에서 열린 準備委員會에서 主要懸案事項 두가지 점에 대해 南北諸國間에 妥協의 成立에 노력했기 때문에 1986년 가을에 이 會議 開催 展望이 서게 되었다.

1. 原子力平和利用 UN會議의 背景

1950년대부터 시작된 原子力平和利用의 研究開發努力은 1960年代에 原子力發電의 實用化를 가져왔다. 1970年代에 第1次 및 第2次 석유파동을 통해서 各國은 다 함께 石油代替에너지로 原子力發電所의 建設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1년頃부터 현저해진 先進國經濟의 低迷, 省에너지化에 의한 에너지需要의 低下에 의해 에너지需給構造가 변화하여 1970년대에 예상했던것 처럼 原子力發電의 開發을 추진할 필요가 적다고 생각되어 계획의 재검토가 各國에서 행해지고 있다.

력의 代替에너지로서의 役割이 널리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앞으로 電力供給面에서 원자력의 비율이 증대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原子力平和利用에 대한 관심은 開發途上國에서 강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르헨티

그러나 석유의 對外依存도가 높은 歐洲나 일본 등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安全性, 稼動率의 향상에 의한 신뢰성, 경제성이 추구되어 원자

나,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는 이미 원자력발전이 행해지고 있으며, 중공을 위시한 그밖의 여러나라에서도 計劃·建設이 진행되고 있으며 研究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1974년 인도의 평화이용을 名目으로 한 核實驗의 결과 핵확산의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再處理, 우라늄 농축 등의 원자력기술이 확산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 핵개발능력의 확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NPT加盟主要國에 의한 NPT 제3조 2항에서 말하는 輸出規制對象品目이 IAEA를 통해 공표되었다. 1976년에 카터美國政權이 「原子力發電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그 연료로 농축우라늄을 사용해야 하겠으나, 核擴散防止의 관점에서 軍用으로 轉用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再處理나 플루토늄을 燃料로 사용하는 고속증식로의 개발과 상업화는 되도록 늦추어야 한다」는 政策을 내놓아 核燃料사이클의 확립을 전제로 한 여러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우라늄資源供給國인 캐나다, 호주도 엄격한 原子力輸出政策을 내놓아 2國間 原子力協力協定の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1978년에 核燃料, 原子力機器 등 원자력에 직접 관련된 자재의 수출규제품목 외에 우라늄농축,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등 소위 原子力機微技術, 核物質防護基準이라고 하는 NPT범주 밖의 核非擴散상의 고려도 받아들인 主要原子力 供給國에 의한 共通輸出規制措置가 역시 IAEA를 통해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 카터政權은 「1978年 核非擴散法」을 성립시켜 원자력수출에 대해 한층 엄격한 정책을 발표하였었다.

이와 같이 핵실험 이후 원자력평화이용의 국제협력에 대한 엄격한 환경속에서 진정으로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필요로 하는 歐洲 여러나라, 일본 등은 NPT에 가맹함과 동시에 主要原子力 供給國으로서 핵비확산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

며 원자력의 평화이용과 핵비확산의 兩立方法을 검토하기 위해 國際核燃料사이클評價(INFC-E)(1977년 10월~1980년 2월)등도 개최함으로써 재처리 등 核燃料사이클에 관한 機微한 활동에 대한 각국 견해의 相違한 폭을 좁히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이 현재 主要西方側의 여러나라에서는 대체로 원자력의 평화이용과 핵비확산은 兩立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큰 對立點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對해, NPT未加入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原子力平和利用을 유지하려는 國家들 또는 NPT에 큰 기대를 갖고 여기에 가입한 開發途上國은 原子力平和利用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빈약하며, 國際協力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障礙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이들 政治的 障礙를 심의하고, 원자력평화이용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原則 또는 그 方法을 모색하기 위해서 開發途上國들이 제창한 것이 이 UN會議이다.

2. UN會議의 提唱에서 第4回 準備委員會 (1)會議開催日 決定 過程

從來부터 유고슬라비아 등을 중심으로 한 非同盟 여러나라는 開發途上國의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원자력평화이용에 관한 國際協力の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는 UN會議의 開催를 주장해왔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당초 西側諸國이나 일본은 원자력평화이용의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서 多數國間協議의 場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뿐만아니라 국제핵연료사이클(INFCE)회의, NPT재검토회의(1975년부터 5년마다 개최)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UN會議를 개최할 이유가 적다고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었다.

반면, 유고슬라비아 등의 생각은 지금까지의 회의는 技術的인 面에만 그쳤으므로 원자력평

화이용의 정치적인 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國際會議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核燃料, 設備, 資材 등의 移轉에 대해서 존재하는 政治的障壁을 淸掃하기 위해서는 UN會議를 開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7년 제32회 UN총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원자력평화이용에 관한 UN會議」의 개최를 검토한다는 결의(32/50)가 채택되어, 이 會議開催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8년 제33회 UN총회에서는 「모든 加盟國이 UN회의 개최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는 결의(33/4)가 채택되어, 회의개최의是非議論은 계속되게 되었다.

1979년 제34회 UN총회에서는 「原子力平和利用 國際會議를 UN시스템의 주최하에, 적절한 역할을 할 IAEA의 참가를 얻어서 원칙적으로 1983년까지 소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決議(34/63)가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서 원자력평화이용분야에서의 주요 국제기구인 IAEA의 이 會議에서의 역할 및 회의의 개최시기가 기본적으로 정해졌다.

1980년 제35회 UN총회에서는 「이 회의를 1983년에 소집하며, 1981년 후반에 제1회 준비위원회의 개최를 요망한다」는 결의(35/112)가 채택되었고, 1년후인 1981년 제36회 UN총회에서는 同年 8월에 비엔나에서 열린 제1회 준비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 회의를 1983년 8월 29일 부터 9월 9일까지 주네브에서 개최한다」는 것이 결의(36/78)되었다.

이와 같이 문제의 원자력평화이용 UN회의는 그 開催를 향해 크게 前進하게 될 것 같이 보였다.

(2) 表面에 나타난 立場의 差異와 會議開催中止 決定까지

그러나, 198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회 및 제3회 준비위원회에서 南北諸國間에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1982년 제

37회 UN총회에서 「(제4회) 준비위원회를 明年 初에 뉴욕에서 개최하고, 이 회의 일정은 다음 회 준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결의(37/167)가 찬성111, 반대26(서구 여러나라와 일본 및 동구 여러나라), 기권7의 표결로 채택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原子力平和利用分野에서 국제적인 심의의 중심적 場이었던 IAEA本部가 있는 비엔나에서 제3회 준비위원회가 열렸었고, 1983년 3월~4월에 열릴 제4회 준비위원회는 南側의 주장을 받아들여 UN本部가 있는 뉴욕으로 장소를 바꾸어서 妥協案을 얻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 다시 검토를 계속하기로 되었다.

원래, 南側内에는 원자력평화이용,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인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NPT未加盟國과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NPT가맹국과의 사이에 기본적 立場의 相違가 있었다. 즉, NPT未加盟國에 있어서는 「核非擴散」이란 핵무기의 不擴散만을 의미하며 「平和目的 核爆發裝置」의 불확산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立場으로서 이 立場을 北側에 인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NPT加盟國은 同條約에 가맹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선진국에서 부터 기술이전 등의 협력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여서 이 회의에서 南側의 다수의 힘에 의해 北側에서 부터 원자력분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제4회 준비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提唱한 UN決議 32/50은 핵비확산에 대해 「핵무기의 불확산」만을 나타내는 듯한 表現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NPT에 加盟한 南側의 여러나라는 北側과 동조하여 「핵무기 및 平和目的 核爆發裝置의 不擴散」을 이 회의의 근간으로 삼으려 하고, 南側内部에서 강경한 인도, 아르헨티나 등은 서방측도 이 회의의 기점인 32/50決議에서 핵비확산에 대해 「핵무기의 불확산」으

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제4회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南北의 기본적인 입장을 차이를 조정하는 表現이 모색되었으나, 각각의 기본적인 입장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 회의의 早期開催를 달성하고 싶어하는 그룹은 없으며, 결국 立場의 相違가 한층 더 뚜렷해졌을 뿐이며 결국 아무런 進展도 볼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각 그룹의 妥協案은 記錄에만 그쳤을 뿐 이 회의를 예정되었던 1983년 여름에 개최하는 것은 중지되었으며, 1983년5월의 UN 總會再開總會에서 그 중지가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3. 第38回UN總會와 第5回準備委員會에서의 進展

(1) 主要懸案事項에 對한 妥協

1983년 가을 제38회 UN총회에서 서방측 여러나라는 1985년의 제3회 NPT재검토회의의 준비가 방해받아서 안된다는 立場으로 임했는데, 南側諸國이 이 회의의 개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했기 때문에 「1986년에 이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의 준비위원회 의장과 회의 사무국장에게 懸案事項의 해결을 위해 加盟國과 곧바로 적당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요청한다. 1984년6월에 비엔나에서 제5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결의(38/70)가 채택되었다.

1984년2월 말부터 준비위원회 의장(유고슬라비아)과 회의 사무국장(인도)은 비엔나에서 각국과 접촉하여 懸案問題에 대해 적극적으로 打開努力을 했다.

1984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 비엔나에서의 제5회 준비위원회에서 議長이 假議題 5「國際協力の原則 등」 및 실질사항 결정방식에 관한 의장제안을 정식으로 소개하여 議長 提案이 그대로 채택되었다.

假 議 題

1. 開會
2. 會議議長選出
3. 會議의 組織
 - (a) 手續規則採擇
 - (b) 議題採擇
 - (c) 作業의 組織
 - (d) 議長以外的 役員選出
 - (e) 會議代表의 委任狀
 - (i) 委任狀委員會의 멤버指名
 - (ii) 委任狀委員會의 報告
4. 一般討論
5. 總會決議 32/50에서 言及했고 또한 相互 받아들일 수 있는 核非擴散에 對한 原子力의 平和利用에서의 國際協力에 對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原則 및 이와 같은 協力を 촉진하기 위한 適當한 方法 및 手段(國際協力の 原則 및 그 方法과 手段)
6. 社會的 및 經濟적 發展을 위한 原子力發電의 역할
7. 社會的 및 經濟적 發展을 위한 기타의 原子力平和利用의 역할- 식량, 농업, 보건 및 의학, 水理學, 공업 등
8. 最終文書의 採擇
9. 閉會

4. 結 論

이 회의의 개최는 2대懸案事項에 對해 南北間의 妥協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전망이 서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협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核非擴散」의 정의에 對해서 議論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NPT 未加入의 南側 강경파와 北側 여러나라 사이에 기본적인 立場의 相違가 있으며, 이 立場의 일치를 얻는 것은 지금까지의 經緯로 보아 平行線的 議論이 되풀이 될 것 같으며 또한 1985년도 제3회 NPT 재검토회의에서의 議論이 계속 여러가지의 형태로 이 회의에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